국정원 국정조사 충돌에 심상찮은 정국 … 민주 장외집회 나서나

황우여·김한길 여야 대표 회동 결국엔 '빈손'

민생법안 등 합의 내용 4월국회 재확인 수준 그쳐

민주당 "여당은 약속대로 군말없이 국조에 응하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18일 조찬회동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처음 이뤄진 양당 대표 회동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대 현안인 국정원 국조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양당의 지난 4월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 정당연구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당 연구소장이 조속히 만나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도 사전에 양측에서 이미 의견조율을 마친 것이다. 때문에 이날 대표 회담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못낸 사실상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원 국조 문제와 관련, 김 대표가 "여야가 이미 국정원 댓글 검찰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초기의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여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두 대표는 1시간 15분가량의 회동 시간 대부분을 국정원 국조에 할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주된 원인은 '검찰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공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여상규 의원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는 기소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므로 국조 실시는 관련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국정조사를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와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군말 없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권의 정통성까지 타깃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 지도의 태도는 그동안의 대응과는 달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점과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을을 위한 정치'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19일 긴급의총을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원들 간에는 강경 주장과 신중 입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게 아닌데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6월 임시국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5·18 왜곡·폄훼 규탄 결의문' 채택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인천에서 제172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찬 광주5개구 의장단협의회장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5·18에 대한 일부 종편 방송의 역사 왜곡 프로그램 방영과 인터넷사이트 '일베'의 악의적이고 도를 넘어선 비방에 대해 정부의 강력 대처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부터 철저한 민주, 인권, 역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역사왜곡, 폄훼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수세 몰린 새누리 '색깔 공세'

여야, 국정원 선거개입 싸고 연일 난타전

민주당 "새누리 선거캠프 대책회의 열었다" 폭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 폭로를 하며 여권을 밀어붙였다.

전날 새누리당은 "김부겸이 민주당 공작정치 몸통"이라며 폭로로 맞불을 놓는가 하면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운동권 전력을 들어 색깔론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추가 폭로를 자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격에 집중했다. 또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합작한 '매관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감금 혐의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이번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의 폭로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날 색깔론 시비의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이 전날 자신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소개하며 "정권에 맞서 싸울 때 공부만 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헌신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인신공격성 무례한 언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학생운동 한 사람이 사회 부조리와 권력기관의 비리를 바로잡았는데,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싸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 폭로를 하며 주도권을 계속 행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몸통설의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일어나던 같은 시간,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는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멤버들, (권 실장이) 주재하면서 통화한 내역들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 등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압박을 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두환, 잠 못드는 밤이 시작됐다

'전두환 추징법' 주내 상임위 상정 … 여당에도 변화 기류

김덕중 국세청장, 전씨 일가 세무조사 추궁에 "밝힐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이번 주 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8일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우선 여당의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주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를 하게 된다"고 새누리당과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입법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주는 첫 논의다. 아무래도 뜨거운 법안이고 첫 논의다 보니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달 안에 법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누리당의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급법이 적용된 친일재산환수법, 성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전두환 추징법' 역시 소급법 논란과는 관련이 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는 경우에는 개별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인 세무검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 업무"라며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세정운영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종두

드디어 한판 붙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7월 27일부터 매주 목.토 출발
무안공항출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가족 휴향지 태국방콕으로 GOGO
ALL포함!! 출발일 : 7/27, 8/1, 3, 8, 10, 15, 17
실속 1,100,000
품격 1,150,000
상품특전
1. 광주– 무안공항 수송(15명이상)
2. 4성급 또는 5성급호텔 숙박. 3. 무안공항 출발의 편리함.
4. 홀더백재공 5. 씨푸드,일식뷔페 특식

가족 ,친구 ,연인과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규슈 !! 일본 규슈 온천 관광
강추 히타 고급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69,000
※출발 가능한 인원 : 최소 5명, 최대 15명
※불포함 사항 : 선내식사 2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ALL포함!!
실속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야마가세 펜션 온천 즐기기 4일 349,000
품격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4일 499,000
품격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569,000
항공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3일 68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품격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출발일 7/18 ALL포함 899,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취항.(매주목,일요일 출발)
마닐라 3박4일(마발사 88온천) 일급 778,000~ 특급 858,000~
특 전 : 발사투어[줄낚시,스노클링,발사이용,바비큐 중식], 88핫스프링, 마닐라 디스커버리, 열대과일시식, 특식 1회
마닐라 4박5일(마발사88온천디스커버리) 일급 868,000~ 특급 968,000~
특 전 : 발사투어[줄낚시,스노클링발사이용,바비큐 중식], 88핫스프링, 마닐라 디스커버리, 열대과일시식, 특식 2회 [무제한 쇠고기 샤브샤브, 삼겹살]
마닐라/보라카이 3박 4일 일급 938,000~ 특급 1,038,000~
특 전 : 호핑투어[스노클링+줄낚시,씨푸드중식], 체험다이빙, 발마사지, 세일링 보트, 디스커버리투어, 특식 2회
마닐라/보라카이 4박 5일 일급 1,038,000~ 특급 1,158,000~
특 전 : 호핑투어[스노클링+줄낚시,씨푸드중식], 체험다이빙, 발마사지, 세일링 보트, 디스커버리투어[보라카이/마닐라], 보라카이 특식 2회 [몽골리안 BBQ+BACKPACK], 마닐라 특식 1회[무제한 쇠고기 샤브샤브]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7/20,7/24,7/28,8/01,8/05,8/09
관광형 다낭+호이안+후에성 1,0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휴양형 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핑투어 +스노쿨링)
특급 1,149,000~ 초특급 1,2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골프 몽고메리C.C + 다낭C.C (주중기준)
특급 1,449,000~ 초특급 1,5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주말&공휴일 추가요금, 클럽식, 캐디팁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목단강 백두산 북파 용정 도문 4일 900,000 불포함(인천수송비,여권및 개인비용) 출발일 : 7/11
요란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라오스
3박 5일 968,000~ 4박 6일 1,12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카약킹사공팁,전신맛사지팁
인도양의 아름다운 눈물이라 불리는 미지의 섬!! 스리랑카 3박 6일 1,960,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여행지 카메라입장료(1~2$)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특 전 : 광주–목포 셔틀버스 포함.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188,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388,000~
포함사항 :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